

다산포럼

이승우



미리 밝히는데 나는 텔레비전을 통해 중계되는 축구 경기를 즐겨 시청하는 편이다. 2002년 월드컵 때 한국팀의 경기를 놓지 않고 보았다. 엊그제 우리 대표팀과 보스니아의 경기전도 놓지 않았다.

축구는 그물망을 출렁이게 하는 골에 대한 기대로 90분을 긴장하게 하고 흥분하게 함으로써 이 재미있는 현실을 잊게

는 깊어가고, 선거철이지만 지지하고 싶은 정당도 없고 찍고 싶은 인물도 없지 않은가. 도무지 사는 재미가 없지 않는가.

축구는 그물망을 출렁이게 하는 골에 대한 기대로 90분을 긴장하게 하고 흥분하게 함으로써 이 재미있는 현실을 잊게

텔레비전의 호들갑스러움

한다.

그런데 이 놀라운 힘은 정말로 축구의 힘일까. 경기를 중계하는 텔레비전 없이도 월드컵이 지금과 같은 열정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눈치챌 수 있다.

단순하고 빠르고 폭발적인 축구 경기의 매력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 정도의 재미를 주는 운동 경기가 축구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축구공을 차는 선수들의 근육의 움직임과 표정과 땀과 골대를 향해 날아가는 공의 움직임을 실제보다 오히려 생생하게

리와 16강을 다룰 같은 조 국가의 축구 스타일이나 개개 선수들의 신상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갖게 되었다.

한미디어 우리 텔레비전들은 너무 호들갑스럽다. 물론 마니아들이 어디나 어느 분야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어져서 나오는 주연 배우의 신상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누구나 어느 국가 대표팀의 축구 선수 신상에 대해 빠삭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텔레비전은 조금 덜 호들갑스러워도 괜찮을 것 같다.

〈소설가·조선대 교수〉

는 사실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흥미로운 소식이 월드컵의 개최국 독일에서 들려왔다.

그쪽도 월드컵 열기가 뜨거운 모양인데 (왜 그렇지 않겠는가). 과다한 월드컵 방송에서 해방되자는 취지의 '축구 자유지대' 캠페인이 베를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월드컵 중계방송을 하는 텔레비전이 없는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고 싶은 사람들의 권리 존중이라는 운동이었다.

텔레비전을 통해 축구 경기를 살피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6월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텔레비전을 켜도 볼 게 없을 거라며 벌써부터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한쪽으로 우루루 풀리면 다른쪽이 있다는 것조차 망각해 버리는 우리 사회의 횡溢적이고 비탈지고 지나친 이상열기이다. 공을 치는 선수들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드라마를 보고 싶은 사람도 있는 법이다. 누구나 어느 드라마에 나오는 주연 배우의 신상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누구나 어느 국가 대표팀의 축구 선수 신상에 대해 빠삭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텔레비전은 조금 덜 호들갑스러워도 괜찮을 것 같다.

〈다산연구소 제공〉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고영만



수출업계가 연일 지속되는 환율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역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달러당 950원대에서 수출채산성이 한계점에 도달했거나 적자로 돌아선 기업이 전체의 9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다.

특히 중소기업은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 많은 기업이 적자로 보면서도 굳이 수출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되는지 그 사정을 알고 보면 끝내 경우가 많다.

그 첫번째 이유는 어렵게 구축해 놓은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수출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환율하락 위기 극복의 확실한 방법

다음으로는 기업을 지속하려면 종업원에게 급여를 줘야 하는데 급여 등 긴급 운영자금을 마련하자면 면지면서도 수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환율하락 위기를 극복해 우리 경제의 내상을 기르고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성공사례로서 20여년 전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일본의 경우를 소개하고자 한다.

80년대 중반 미국은 늘어만 가는 무역수지 적자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엔화를 타깃으로 삼았다.

미국 등 선진 5개국은 85년 9월 G5회담에서 엔화절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을 이끌어냈고, 이후 엔화는 급속한 절상이 시작됐다. 달러당 260엔이었던 엔화가 1년만에 반값도 안 되는 120엔대까지 급락한 것이다.

이후에도 몇 차례 등락이 있기는 했으나 엔화는 하락을 거듭해 95년 4월에

는 84엔까지 떨어짐으로써 10년 동안 거의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일본기업은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일본내 생산기반의 해외이전이 촉진되면서 산업공동화가 가속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일본기업은 엔고를 극복하기 위해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의 성 강화에 온 힘을 기울였다.

특히 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 품질 향상과 신소재 개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면서 기술 및 품질면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게 됐고, 그 결과 대외교역 측면에서 수출이 오히려 늘어났으며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일본과 같이 지속적인 원고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업체들은 어떤가. 환율하락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를 피하기 위해 우선 줄이기 쉽고 당장 타격이 없어 보이는 연구개발(R&D) 비용을 축소하는 수출업체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지출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품질향상 및 생산성 제고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게 되며 국가적으로도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지층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고 바이어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면서 우리 상품의 품질경쟁력을 다져 나가는 것이 원고 극복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장〉

등산객 위해 산에 화장실 설치했으면

주 5일제로 인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최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남편을 따라 도내 유명산을 많이 찾다니면서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을 제외한 산에는 화장실이 부족하고 아래에 없기도 한다. 생리현상을 무작정 막을 수는 없는 노릇. 이 때

문에 산을 올라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을 보는 민망한 장면도 종종 접한다.

그나마 남자들은 낫다. 여자들의 경우 장소를 찾지 못해 진땀을 흘리며 산을 오르거나 도중에 등산을 포기, 내려오기도 한다.

산 입구나 중턱·정상 부근에 수거도 쉽고 관리도 편리한 자연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 ▲김옥임·순천시 인제동

[오피니언]

시설

'50배 과태료' 선거법 개정논의 할 필요 있다

대검이 선거법 중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을 완화하는 쪽으로 법무부에 개정을 건의한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이 조치를 일단 환영하며 이밖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몇몇 선거법 조항들을 함께 손질을 제안한다.

허루벌이가 1만원도 안되는 시골 아낙네들이 입후보자로부터 2만원짜리 식사를 대접받고 고발당해 10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 일이나 한마을 노인 전체가 이와 비슷한 경우로 50만원짜리의 과태료를 물게된 사건들이 보도될 때마다 대다수 유권자는 '50배 과태료 조항'이 지나치다는데 공감했을 것이다. 부정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상벌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효과적일지 몰라도 결국은 치벌의 형평성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또 이 조항에 적용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실제로는 약 10배정도의 벌금만을 선고하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는 만큼 이조

항은 이제 그 실효도 약하게 됐다.

현행 선거법은 또 정당의 공천을 신청한 자가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아예 출마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침정권 및 편선기관의 지나친 제약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조항도 철저하게 제거된다면 위험소지도 끝나고 경쟁률이 높아지며 선거를 끝내는 부작용이 더 크다.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짧아 정치신인들이 유권자들에게 이름 알릴 기회조차 없다는 불만도 반영됐으면 한다. 4년간 지방자치를 맡길 일꾼을 뽑으면서 선거운동 기간이 고작 13일간이란 건 문제가 있다. 돈선거를 막고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얼마든지 달리 취할 수 있다.

이제 내일이면 지방선거가 끝나지만 7월엔 또 재·보궐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법무부와 국회가 일을 서둘러 개정선거법이 신속히 적용됐으면 한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 정년연장검토 긴요하다

정부가 기업 정년의 단계적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2010년까지 임금피크제 등을 실시한 뒤 기업여건을 감안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기업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불가피한 선택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데 장년·노년 증이 일자리가 없는 현재의 고용구조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국가적으로 복지대책에 지나치게 큰 부담을 떠어야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락한 노후 생활을 기대하기 힘들다. 구조조정 여파로 40대에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늘면서 당사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공 퇴출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때문에 정년 연장은 세계적 추세다. 일본은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개정해 60세 정년을 62세로 늘리고 2013년까지 65세로 연장키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고령화 해결책으로 정년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반면 우리의 고령화 대책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민간기업 가운데는 대학전선이 노사합의로 정년을 2년간 연장했으며 대우조선 등 일부 조선업체 노조가 정년 연장을 을 입단협 안건으로 제시한 것이 고작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년층을 활용하는 수 밖에 없다. 기업의 부담 증가로 정년 연장이 아직 시기상조라면 임금 피크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임금 피크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재정 지원을 늘리고 임금이 삭감되는 근로자들에게는 차액 보전이나 소득세 경감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노년층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은 잘 활용하면 국가가 기업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無等鼓

지난 4월 스위스 관광국이 '월드컵 과부 유치 광고'를 냈다. 반라차림의 섹시한 남성들을 동원, 월드컵 기간 남편이나 애인을 TV에 빼앗길 전세계 여성들에게 스위스로 놀러오라고 유혹했다. 월드컵 개최국인 독일에서도 축구로부터 해방을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고 유럽각국이 월드컵 기간 동안 할인된 여행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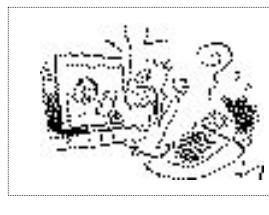
축구에 미쳐있는 남편들에게 질리 네덜란드 여성들은 지금 반(反) 월드컵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여성들이 TV 채널을 조정할 권리와 남자들의 오렌지색(네덜란드 축구대표팀 상징색) 외출복 세탁을 거부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다. '축구애기 제일 싫어하는'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은 축구에 빠져 있는 남편을 보면 한심하다. 언제부터인가 한국대표팀 경기도 아닌 '무슨 프리미어리그인가 프리마인가' '남의 나라 축구'에 왜 미치는지, 늦잠에 게으르기 짜이없는 인간이

없다. 임글랜드의 원조 꽃미남 배컴, 벌써 나이 30에 이르지만 스페인의 영원한 미소년 라울, 아르헨티나의 아이마르, 브라질의 카카, 프랑스의 앙리, 한국의 안정환 등 남성보다 멋진 남성들을 통한 에로티시즘을 즐길 권리가, 여성들에게는 있다.

그러면 축구에 빠져 오직 승리를 염원할 것이다. 그러나 경기를 보며 남성들의 육체를 즐기는 것도 나쁠 건

월드컵 과부



최인준·광주시 북구 운정동

독자마당

쇼핑몰 지나친 흥보성 댓글, 소비자 혼란 가중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의 소비 경험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구매자들의 상품평이나 댓글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업체들의 일방적인 광고·홍보보다 같은 구매자들끼리 정보교류인 상품평·댓글이 활성화돼야 사이트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쇼핑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얻은 상품평·댓글에 대해서는 우수작을 선정, 선물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인터넷 쇼핑은 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없는 점에서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들도 이러한 코너를 활성화 시키고 있는 것 같다.

▲최인준·광주시 북구 운정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회장 許宰皓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鎬	편집국장 池炯源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